

태양의 해발로 영생하시는 백두산녀장군

내 나라, 내 조국의 앞길에 끝없이 밝은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1돐을 맞는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20세기가 낳은 가장 걸출한 녀성혁명가에 대한 한없는 경모와 그리움으로 끝없이 설레이고 있다.

오늘도 영생의 모습으로 우리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 있게 고무 추동하고 계시는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

우리를 수록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태양의 해발이 되시여 조국과 혁명암에, 후대들 앞에 가장 불멸할 공적을 쌓아 올리신 전설적 녀성영웅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이 가슴사무치게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김정숙동부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향으로 일관된 가장 값높은 한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충실향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고 언제 어디서나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투쟁하겠다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아도 영원히 그의 혁명전사답게 멋없이 살며 억세게 투쟁하겠다고 뜨거운 심장의 맹세를 다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화신으로 한생을 빛내이시였다.

주제 25 (1936) 년 9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땅에 진출하신 어느 날 밤하늘에서 빛을 뿐이고 있는 별들을 바라보시며 김정숙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려온다.

저 별들이 태양이 없어야 어둡게 지금처럼 밝은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야 저 별들이 빛을 낼 수 있을지 김일성장군님을 사령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유격대원들도 빛나는 것입니다. …

김정숙동지의 그 날의 말씀에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반들어 모시려는 끝없는 충실향과 한생을 그이의 혁명전사로 살며 쌔우려는 신념이 얼마나 뜨겁게 비껴있는 것인가.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는 것이 조선혁명을 지키는 길이다!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화신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끓이치고 있다.
— 최령 혁명사적지에서 —

본사기자 장 청 일 쪽음

온몸이 그대로 사령관동지를 지켜선 방랑벽이 되자!

이것은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절대불변의 신조였다.

하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호위사업을 첫째가는 임무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시고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목숨으로 지키시였다.

적란이 비발치는 곳에 주저없이 환물을 내세워 달려드는 적들을 반대방향으로 유인하여 소멸하심으로써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킨 것이다.

주제 29 (1940) 년 4월 중순 어느 날에 있을 것이다.

대원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데 불의에 적 토벌대' 놈들이 달려들었다. 정황은 둠시 위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세월

이 흐른 후에도 그때의 가슴뜨거운

가신 걸음은 불과 몇발자국이고 적들을 쓸어눕힌 순간은 몇초밖에 안 된다. 그러나 그 한순간은 조선혁명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한 위대한 순간으로 역사에 걸이 빛나고 있다.

가장 임혹한 순간의 영웅적위훈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순간순간을 불같은 천신으로 심장을 끓이고 온기를 깡그리 바치는 열렬한 혁명가, 친원두사만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 29 (1940) 년 4월 중순 어느 날에 있을 것이다.

길에서 백두산녀장군께서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이 항일의 전구들마다에 새겨져 빛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세월

이 흐른 후에도 그때의 가슴뜨거운

영활한 작전을 펴시었다.

그때 사령부의 철수를 엄호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백발백종의 사선의 고비에서 여러번 기적적으로

명중사격으로 적들을 죽음히시며

로 살아날수 있었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가장 어려웠던 1930년대,

1940년대 온갖 원쑤들의 꿈수 없는 모략과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수령의 혁명사상과 평도적권위가 확고히 응고고수되며 주체혁명위업을 끌어들이고 전진 할수 있을것을

그러시고는 한시바삐 사령부로 돌아가 사실을 보고드리기로 결심하시였다.

사령부에로의 행군을 앞두고

이 떠나게 된 한 대원이 그이의 건강이 끌려되어 근심에 짜여있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두사람의 곤난이나 명을 문제로 삼을 때가 아니라, 기여가고 굴러가서라도 사령관동지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가다가 열번 쓰러지면

마음에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뻗친 다시 일어나 꼭 사령관동지께

사실들을 엮지 못해하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숙동지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령님의 평도를 받들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배신행위라는 것을 제재에 간파하시였다.

가장 어려웠던 1930년대,

1940년대 온갖 원쑤들의 꿈수 없는 모략과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수령의 혁명사상과 평도적권위가 확고히 응고고수되며 주체혁명위업을 끌어들이고 전진 할수 있을것을

그러시고는 한시바삐 사령부로 돌아가 사실을 보고드리기로 결심하시였다.

사령부에로의 행군을 앞두고

이 떠나게 된 한 대원이 그이의 건강이 끌려되어 근심에 짜여있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두사람의 곤난이나 명을 문제로 삼을 때가 아니라, 기여가고 굴러가서라도 사령관동지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가다가 열번 쓰러지면

마음에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뻗친 다시 일어나 꼭 사령관동지께

울려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림수산이

수령의 평도를 받들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배신행위

를 제재에 간파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시바삐 사령부로 돌아가 사실을 보고드리기로 결심하시였다.

사령부에로의 행군을 앞두고

이 떠나게 된 한 대원이 그이의 건강이 끌려되어 근심에 짜여있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두사람의 곤난이나 명을 문제로 삼을 때가 아니라, 기여가고 굴러가서라도 사령관동지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가다가 열번 쓰러지면

마음에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뻗친 다시 일어나 꼭 사령관동지께

울려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림수산이

수령의 평도를 받들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배신행위

를 제재에 간파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시바삐 사령부로 돌아가 사실을 보고드리기로 결심하시였다.

사령부에로의 행군을 앞두고

이 떠나게 된 한 대원이 그이의 건강이 끌려되어 근심에 짜여있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두사람의 곤난이나 명을 문제로 삼을 때가 아니라, 기여가고 굴러가서라도 사령관동지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가다가 열번 쓰러지면

마음에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뻗친 다시 일어나 꼭 사령관동지께

울려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림수산이

수령의 평도를 받들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배신행위

를 제재에 간파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시바삐 사령부로 돌아가 사실을 보고드리기로 결심하시였다.

사령부에로의 행군을 앞두고

이 떠나게 된 한 대원이 그이의 건강이 끌려되어 근심에 짜여있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두사람의 곤난이나 명을 문제로 삼을 때가 아니라, 기여가고 굴러가서라도 사령관동지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가다가 열번 쓰러지면

마음에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뻗친 다시 일어나 꼭 사령관동지께

울려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림수산이

수령의 평도를 받들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배신행위

를 제재에 간파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시바삐 사령부로 돌아가 사실을 보고드리기로 결심하시였다.

사령부에로의 행군을 앞두고

이 떠나게 된 한 대원이 그이의 건강이 끌려되어 근심에 짜여있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두사람의 곤난이나 명을 문제로 삼을 때가 아니라, 기여가고 굴러가서라도 사령관동지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가다가 열번 쓰러지면

마음에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뻗친 다시 일어나 꼭 사령관동지께

울려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림수산이

수령의 평도를 받들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배신행위

를 제재에 간파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시바삐 사령부로 돌아가 사실을 보고드리기로 결심하시였다.

사령부에로의 행군을 앞두고

이 떠나게 된 한 대원이 그이의 건강이 끌려되어 근심에 짜여있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두사람의 곤난이나 명을 문제로 삼을 때가 아니라, 기여가고 굴러가서라도 사령관동지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가다가 열번 쓰러지면

마음에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뻗친 다시 일어나 꼭 사령관동지께

울려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림수산이

수령의 평도를 받들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배신행위

를 제재에 간파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시바삐 사령부로 돌아가 사실을 보고드리기로 결심하시였다.

사령부에로의 행군을 앞두고

이 떠나게 된 한 대원이 그이의 건강이 끌려되어 근심에 짜여있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두사람의 곤난이나 명을 문제로 삼을 때가 아니라, 기여가고 굴러가서라도 사령관동지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가다가 열번 쓰러지면

마음에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뻗친 다시 일어나 꼭 사령관동지께

울려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림수산이

수령의 평도를 받들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배신행위

를 제재에 간파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시바삐 사령부로 돌아가 사실을 보고드리기로 결심하시였다.

사령부에로의 행군을 앞두고

이 떠나게 된 한 대원이 그이의 건강이 끌려되어 근심에 짜여있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두사람의 곤난이나 명을 문제로 삼을 때가 아니라, 기여가고 굴러가서라도 사령관동지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가다가 열번 쓰러지면

마음에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뻗친 다시 일어나 꼭 사령관동지께

울려주고있다.

힘있는 당조직정치사업으로 당대표자회를 혁명적경사로 빛내이자

기술 발전의 지름길로 이끌어

랑책 베아링 공장에서 정보산

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CNC화된 공작기계들을 만들어내고 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눈에 띄는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최첨단들과를 위한 투쟁을 묘술해보이며 이를 통해 기술력은 노력을 승배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의 시대는 두뇌전의 시대이며 시스템 전의 시대이다.»

공장에서 처음으로 설비들을 CNC화하는 문제가 토의되며 몇몇 전의 일이 있다.

그때 일군들속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CNC화된 선반을 한데 가져다놓고 보면서 만들자는 것이 기본으로 되고 있었다.

물론 체험으로 해내려는 열

의는 좋았다.

하지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CNC기술이 앞선 어느 한 단위에 기술자들을 과관하여 설비를 만들어오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초급당인 군들의 속깊은 궁님이 있었다. 순수

랑책 베아링 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제침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무작정 달라붙는 것보다 앞선 단위의 기술자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우면서 설비제작을 추진하면 훨씬 기업을 단축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단위들을 호상간 서로 돌고 이끄는 짐 단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최첨단들과를 위한 투쟁을 묘술해보이며 이를 통해 기술력은 노력을 승배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의 시대는 두뇌전의 시대이며 시스템 전의 시대이다.»

공장에서 처음으로 설비들을 CNC화하는 문제가 토의되며 몇몇 전의 일이 있다.

그때 일군들속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CNC화된 선반을 한데 가져다놓고 보면서 만들자는 것이 기본으로 되고 있었다.

물론 체험으로 해내려는 열

의는 좋았다.

하지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CNC기술이 앞선 어느 한 단위에 기술자들을 과관하여 설비를 만들어오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초급당인 군들의 속깊은 궁님이 있었다. 순수

는 주목되는 일이다.

최근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의 연구사

원회에

제침

제작

제조

제작

</div

선군혁명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서거하신지
61돐이 되었다. 이날을 맞으
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은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생애를
가슴속깊게 들이켜보며 그이께
송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다면 진보적인류가 수십년
세월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를 그토록 두어야
하며 그리워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운
김정숙동지께서 투철한
수령층사용원정과 고결한
풍모, 특출한 재능과 인격,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지니시고
정력적인 혁명활동으로 우리
인민의 선군혁명력사와 더
불어 영원불멸할 빛나는 업적
을 쌓으셨기 때문이다.

하기에 뻘진 산의 대장군
김정숙동지는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고서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토의 목소리들은
세계도처에서 끊임없이 울려나
오고있다.

여기에는 스위스조선위원회 회
원장이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
움의 정을 안고 한 말이 있다.
『여마다 9월 22일이 오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들
은 위대한 혁명가이시고 항일의
너성영웅이시며 조선의
국민으로서는 한없이 존경해
야 한다.』

중국에서는 9월 18일 일
본침략자들이 일으킨 9·18
사변 79년이 되는 것과 관련
하여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이 날 노령성에서는 1·4개
도시에서 국지를 잊고 광
화민족을 부흥시키자는 의미를
담아 반향공경보를 울렸으며
심양시의 여러 박물관, 기념관
들에서 일제에게 수난당한 동
포들을 추모하는 행사들이 있
었다. 또한 예술영화 『9·
18』이 상영되었다.
천진시와 길림성 장춘시에서

도 경보가 울렸으며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이 유적지
들을 찾아 지난날의 수치를 잊
지 않고 나라를 친화시키기 위
해 헌신 할 것을 표명하였다.

중국 무역 보도판 공식이
10일 백서 『중국의 인력자
원상황』을 발표하였다.

백서는 인력자원을 적극 개
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
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된 상태이며 추가로 2만 50
00여동의 살립집건설이 계획

된다. 그러나 인력자원대국으로부터 인
력자원강구에로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시종일관

한 광활하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학제적 발전을

나라의 학제적 발전을 확보하

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적인 과

제이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

한 인적 및 지적 담보를 보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람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나라의 현대화건설을 위